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09:00 배포시
담당자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07, suklee@kdi.re.kr) 나미나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원 (044-550-4018, mina99@kdi.re.kr)
배포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

-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4:00 ~ 18:0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오키드룸(2층)
- 주 최: KD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12월 15일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를 주제로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를 개최, 변화하는 북한경제 분석 및 통계자료 집적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활동 장려 등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국내 북한경제연구는 통계자료 부재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토론회는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경제연구’,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연구’, ‘새로운 북한경제연구의 모색’으로 구성
 - 제1세션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경제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 북한경제의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북한경제연구방안을 검토
 - 제2세션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연구’에서는 빈약한 북한의 통계데이터에 관한 보완방안을 논의
 - 제3세션에서는 변화하는 북한경제와 북한의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관해 종합적으로 토론

- 토론회에는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이석 KDI 연구위원 등 약 30여명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함.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발표요약**

❖ 첨부 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식
14:10~15:30	제1세션: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경제연구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15:45	휴식
15:45~16:25	제2세션: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연구 이석(KDI 연구위원) 최지영(한국은행 부연구위원)
16:25~16:40	휴식
16:40~18:00	제3세션: 새로운 북한경제연구의 모색 김병연(서울대학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한양대학교 교수)
	폐회 및 만찬

* 각 세션에서는 해당 발표자 모두발언 후 패널 포함 상호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임.

❖ 첨부 2. 발표요약

세션 1.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경제연구¹⁾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지난 5년간 북한경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림.

-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적 지표, 특히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됨.
-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학자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의 진전된 시장화로 북한경제 상황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평가
- 그러나 암시장 환율, 즉 이중환율과 이중가격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계획과 시장의 혼재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높음.

□ 산업 측면에서 북한경제를 평가하면, 1998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있으나 산업별 회복 속도는 매우 불균등함.

- 2000년대 북한경제 회복의 원인은 국제사회의 지원·대외무역 확대 등 대외경제관계 개선, 극심한 후퇴 이후 자연스러운 회복, 산업정책 전환에 따른 낭비요소의 감소,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국지적 효율성 향상, 국가적인 투자 증가 등이 있음.
- 식품, 기계(농기계, 조선 등 포함), IT 등 여러 분야의 생산력 회복 혹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1) 본 토론회의 발표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임.

생산력 복구 내지 확충 때문인지 일부 공장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현상인지 관찰이 필요함.

□ 한편, 북한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변함없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임.

- 김일성과 김정일은 각각 국방·경제병진노선과 선군노선을 통해 국방공업의 선제적 발전을 적극 추진, 민생경제에 대해 빈번히 언급하는 김정은도 실제로는 핵무력·경제병진노선을 통한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전력증강비는 한국의 약 40%에 달해 군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북한경제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기초로 '북한 시장화의 새로운 특징', '일반주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연구' 등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향후 북한연구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주제는 경제운용의 정치적 배경 및 특성, 경제정책의 변화(가능성),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상황의 주요 특징, 시장(장마당)의 확산 실태,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관계 등이 주를 이룸.
- 발표에서는 북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살펴보고, 북한 내 정책결정과 그 효과가 경제실태에 반영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논의함.

세션 2. 북한의 통계데이터와 북한경제연구

이석 KDI 연구위원 /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 2000년대 이후 경제학자가 수행한 북한경제연구는 경험적 증거(데이터)에 의거하여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된 결과, 연구의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됨.
 - 그러나 2010년 이후 사용되는 북한관련 통계데이터에 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데이터 기반의 북한경제연구 자체가 난관에 봉착해 있음.

- 제기되는 북한관련 통계데이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절대적) 적절성’의 부재: 북한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통계데이터 가운데 어떤 데이터도 더 적절한 데이터란 존재하지 않음.
 - 북한경제와 관련된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용과 성격, 수치 등이 빈번하게 달라져 사용 자체에 대한 혼란 야기

- 제2세션에는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료(데이터)를 활용·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석 KDI 연구위원과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참여학자들이 토론함.

세션 3. 새로운 북한경제연구의 모색

김병연 서울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 교수

-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및 일반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데이터들이 외부에 축적됨으로써 북한사회의 경제분석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매년 추정하는 북한의 GNI 성장률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경제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
- 그러나 이러한 북한관련 통계데이터들에 대해 두 가지 아쉬움이 제기돼 왔음.
 - 첫째, 북한관련 통계데이터들이 분산돼 있어 종합적 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했음.
 - 둘째, 기존 통계데이터들 중 상당수는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심지어 서로 불일치하는 통계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통계적 결함이 존재함에도 전면적 분석이나 개선이 시도되지 않았음.
- 제3세션에서는 1, 2세션을 총괄하고 향후 북한의 통계데이터 수집과 정리,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북한경제연구의 방향을 모색함.